연중 제17주일 강론(2019년 7월 28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느 날, 사제 한 명과 버스 기사 한 명이 동시에 죽어서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서 베드로 성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버스 기사에게 “따라 오라”고 말합니다. 버스 기사는 베드로 성인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버스 기사를 아주 멋진 초호화 주택으로 안내하면서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이 천국에서 살 집입니다.” 그 호화 주택에는 볼링장부터 올림픽 사이즈의 풀장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 마이 갓!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버스 기사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성인은 사제를 “따라 오라”고 안내합니다. 그 사제가 안내된 곳은 아주 초라하고 낡은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침대와 오래된 텔레비젼 한 대가 다 였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머물 천국의 집입니다”하고 베드로 성인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사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혹시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저 호화 주택이 제가 머물 집일 것 같은데… 저는 사제였습니다. 매일 성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하느님 백성들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네, 맞는 말이요!” 베드로 성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복음 선포를 하고 강론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졸았습니다. 반면에, 저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만 했다오!” ㅋㅋㅋ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요? 부자 되게 해 달라고요? 아니면, 불행이나 원수들로 부터 구해달라고요?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다인들은 이미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인들은 하루에 세 번의 기도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루 세 번의 의무 기도를 남들에게 확인 받기 위해서라도 신심 깊은 유다인들은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남들에게 기도한다는 눈 도장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전 앞마당이라든가, 장터의 한 모퉁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다 쳐다 보는 곳에서 ‘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 받기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아주 오랫동안, 좋은 말 다 써가면서, 온갖 폼 다 잡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보여 주기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아니면,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알려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경건하고 착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실제로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실, 기도가 무슨 자판기 같은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넣고 버튼 누르듯이 그 결과물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때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때로 한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은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 가만히 보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보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할때가 많습니다. “하느님,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제발 내 뜻 좀 이루게 도와 주세요”하고 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이 내 뜻대로 안해주면, 하느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때려 칩니다.

 하느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마치 지혜로운 부모가 사랑스런 자녀에게 때로는 ‘노’라고 대답할때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행위가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만 있는데로 다 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수화기를 들고, 내 모든 문제들, 내 상황들, 온갖 어려움들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하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들어보지도 않고, 마냥 불평만 합니다.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하고. 내 이야기를 했으면, 하느님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봐야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없다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신앙 생활을 해야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